

특별기고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 향한 큰 걸음



국승근 /합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 한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이지만 대부분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고만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정치에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려는 개개인의 작은 노력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다.

오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는 특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인데 벌써부터 뉴스와 SNS 등 수

많은 미디어를 통해 국선에 관한 각종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지역의 정치이슈를 접하다 보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이제부터 유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고 정책 방향에 유권자의 생각이 집약되도록 소중한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내가 선거의 주인이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 항상 그 권리를 행사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 “내 한표의 가치와 크기는 바로 우리 유권자가 결정”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유권자다.

유권자의 참여 없이는 선거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으며, 선거 결과 또한 유권자의 선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은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거관리위원

회의 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권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정한 선거문화는 유권자가 중심이 될 때 완성될 수 있다.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보일 때 선거는 정책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유권자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불법선거는 근절될 수 있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고, 유권자들이 즐겁고 희망찬 선거 캠페인을 펼친다면 결국 선거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것이고 민주주의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물론 유권자에게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유권자의 한 표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지 모른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유효하다

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유권자의 생각이 표출되면 대표자들의 정당성도 높아지고 정책 결정의 방향성도 더욱 명확해진다. 내 한표의 가치와 크기는 바로 우리 유권자가 결정짓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누구도 내 생각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대의민주주의는 수많은 유권자 한분 한분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숭고하고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라 할지라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 “건강한 정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또한, 단순히 투표하는 것만이 유권자의 유일한 역할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가짜뉴스(딥페이크 영상)의 확산 및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우후죽순 퍼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유권자의 선택 과정을 어지럽히는 등 민주주의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럴수록 유권자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선거·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정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이처럼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 및 정당을 관심있게 그리고 까다롭게 선별한 후 사전투표일인 4월 5일과 6일에는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그리고 선거일인 10일에는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신의 투표하는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시골 텃밭 마약 양귀비 재배 주의하세요



정선하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감

었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1부터 7월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돌입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21년 1만626건,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시골지역은 마당·텃밭에 양귀비를 심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 88.5%가 60대였다.

실제로 지난해 고흥군에서도 양귀비 밀경작으로 9명이 적발됐다.

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 쓰여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 1주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다.

경찰은 양귀비를 치료목적으로 재배하는 노인까지 단속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양귀비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종전과 또는 즉결심판이력 없는 경우 최대한 훈방, 50주 이상일때만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시골에서는 양귀비의 잎, 종자 등에 함암, 진통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

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경통,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텃밭 등에서 몰래 기르다 적발되곤 한다.

텃밭 작물이 자라나는 시기에 꽃잎 중앙에 검은 점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보인다면 ‘마약’이니 주의를 당부드린다.

우리의 안전, 우리가 만들자



오준영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고 있다.

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상사와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

문해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에 대하여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은 항상 비워두면 되겠다.

Newsletter subscription box for Honam Maeil with contact info and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amboo forest image and subscription details.